

우리가 꾸는 꿈(이사야 54:1-3)

이희수 목사

(총회 학원선교후원회장, 넥타선교회 이사장

신성교회 위임목사)

본문: 이사야 54:1-3

¹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²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³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만 아니라, 꿈이 없는 개인도, 꿈이 없는 가정도, 꿈이 없는 공동체도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민족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18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KJV에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망한다**”고 했는데 ‘묵시’를 ‘vision’으로 번역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가지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와 묵시로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과 비전이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갈 희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없어서 아이를 가질 희망이 없는 여인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하셨습니다. “**1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혼자 사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아지듯이,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어떻게 혼자 사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42,000명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500년 뒤 로마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기 얼마 전에 드린 유월절 어린양의 머릿수로 계산해 본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한 300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3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원선교에 대해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원선교의 현장에서 뛰는 사역자들이 바라보는 학원선교의 현실은 어떤가요? 학원선교의 미래와 전망은 어떤가요? 학원선교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고 학원선교의 미래와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공부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이들의 관심과 생활이 놀이와 게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격과 성품이 점점 더 폐쇄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어른과 부모와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신앙과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더구나 공교육이 제 구실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교사의 권위가 흔들리고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학원선교의 현실이 어렵고 미래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학원 복음화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현실이 답답하고 암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꿈을 꿈시다. 우리의 다음세대가 공부하고 있는 학원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꿈을 꿈시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꿈을 꿈시다. 이 땅의 청소년들이 민족의 일군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군이 되는 꿈을 꿈시다.

학원선교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기에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2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천막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네 장막 터를 넓히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게 하려면 큰 장막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터가 넓어야 큰 장막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 터를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큰 장막을 치기 위해 터를 넓게 닦듯이, 더 많은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 각기 다른 성장과정을 거친 사람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섬기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목회할 대상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그들을 섬기고 목양해야 합니다. 내 맘에 들지 않아도, 나하고 맞지 않아도 그들

을 다 가슴에 안아야 합니다.

학원선교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의 청소년들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린 학생들이 저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인격과 성품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피하거나 이겨보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학생들을 우리의 가슴과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아이들, 고민하고 갈등하는 아이들, 미완성의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이들을 모두 우리 가슴에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마음을 넓혀서 더 많은 아이들을 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터가 넓어지리라”고 하시거나 “터를 넓혀 주리라”고 하시지 않고 “터를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장막 터를 넓히는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넓혀서 방황하고 모든 청소년들과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장막으로 그들을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장막을 크게 짓기 위해서 터를 넓게 닦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가요? 터가 넓어지면 그만큼 천막도 크게 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휘장을 더 쓰고 줄을 더 길게 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터를 넓게 잡아서 집을 더 크게 지으려면 자재가 더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말씀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고 힘을 다해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17에서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았고 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온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상처처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의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 인격, 영혼,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꿈과 야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손해 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흔적입니다. 그런 주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학원선교의 꿈을 이루려면, 우리의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한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기 위해 모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학원선교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청소년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안다면 이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원선교와 청소년복음화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그리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는 희생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천막을 치려면 말뚝이 필요합니다. 터를 넓게 닦아 놓고 큰 천막을 치려면 그만큼 말뚝이 커야 하고 그 말뚝이 깊이 잘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무거운 천막을 묶어 두어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막은 큰 것을 쳤는데 말뚝이 작거나 든든히 박혀 있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말뚝이 뽑히고 천막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막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말뚝이 든든해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고 유혹과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뚝들이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 말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을 맡기신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장막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뚝에 그 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잘 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들이 잘 박힌 말뚝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학원선교와 청소년선교는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청소년들이 감수성이 예민해서 잘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 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사랑하고 기도하고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고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학교의 현실이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구원하는 선교를 하는데 점점 더 방해와 제한이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어서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확실히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학원선교의 현장에서 말없이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한 길을 꾸준히 달려가는 그들 때문에 학원선교와 청소년선교가 계속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원선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학원선교와 청소년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신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박힌 견고한 말뚝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학원선교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학교를 많이 세워서 수많은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교육현실과 정책의 변화로 기독교교육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민족의 일꾼을 길러내는 가장 좋은 현장이고, 그러기에 학원선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낌없이 희생하며, 끝까지 이 사명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